

올림픽 金 집념... 대입도 미룬 '차세대 피겨퀸'



제기회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시상식이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의 김채연이 장려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과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를 연거푸 석권한 '신피겨퀸' 김채연(18)은 대학 입학에 1년 미뤘다.

1년의 세월을 오롯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준비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김채연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대학 진학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며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올림픽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 스스로 결정했고, 부모님도 내 뜻을 응원해주셨다"며 "내 결정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리고를 졸업한 김채연은 이제 학생 신분인 아닌 '경기 일반' 소속으로 된다. 김채연처럼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 경력을 가진 피겨 선수가 운동을 위해 대학 진학을 미룬 예는 드물다. 국내 톱클래스급 선수들은 대부분 체육특기생으로 주요 대학에 진학해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빙상계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국내 피겨 선수가 대학 진학을 미

김채연 예술점수 급상승... "김연아 언니 연기 지도가 큰 도움" "새 시즌도 엄마가 만든 의상 입고 연기...트리플 악셀도 도전"

룬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과 아시안게임, 사대륙선수권대회까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김채연은 다음달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땀던 김채연은 2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 이상 입상한 국내 선수는 김연아가 유일하다.

김채연은 "이번 대회엔 올림픽 국가별 쿼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싶다"며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개인 최고점(222.38점)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 흐름이라면 가능해 보인다.

김채연은 이달 중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219.44점을 획득해 당시 자신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최고점

(208.47점)을 10점 이상 넘어섰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출전한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공인 최고점을 세웠다.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면 한국 신기록 경신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의 ISU 공인 최고점은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세운 228.56점이다.

김채연의 도전이 의미 있는 건, 그의 성장 과정에 김연아의 탄방울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올 시즌을 앞두고 직접 훈련지를 찾아 김채연의 안무 동작 교정 작업을 돕고 많은 조언을 남겼다.

김채연은 "김연아 언니가 연기 지도를 해줬다"며 "특히 안무 동작 포인트를 보냈는데, 감정을 넣어 연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김채연이 최고 성적을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채연은 2023-2024시즌 ISU 공인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60점 초·중반대 예술점수(PCS)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선 68.49점,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선 70.09점을 받으며 개인 최고점 경신의 밑바탕이 됐다.

김채연은 "앞으로 기술적인 요소는 물론, 예술적인 요소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며 "완벽한 연기를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물론, 고난도 기술을 장착하려는 욕심도 있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트리플 악셀과 쿼드러플 투트프 점프를 훈련했다"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데,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나면 좀 더 훈련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시즌 구상은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뒤 정리할 참이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의상을 입고 올림픽 무대에 서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만든 의상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김채연은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뛰면 매우 든든하다"며 "엄마 옷을 입고 꿈의 무대를 밟고 싶다"고 각오를 새겼다. 스키아데리아·연합뉴스

바르사, AT마드리드와 국왕컵 준결승 1차전서 4-4 난타전

FC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 마드리드)가 2024-2025 코파 델 레이(국왕컵) 준결승 1차전에서 서로 4골씩 주고받는 난타전 속에 무승부를 거뒀다.

바르셀로나는 26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유니스 콤파니스에서 열린 AT 마드리드와 2024-2025 국왕컵 준결승 1차전에서 4-3으로 앞서던 후반 추가시간 극장 동점골을 내주며 4-4로 비겼다.

두 팀은 4월 3일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치러지는 준결승 2차전을 통해 결승 진출팀을 결정한다. 바르셀로나와 AT 마드리드의 준결승 승자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준결승 승자와 대망의 결승전을 치른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골 폭풍이

0-2→4-2→4-4...AT마드리드 후반 추가시간 '극장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유니스 콤파니스에서 26일(한국시간) 열린 AT 마드리드와 2024-2025 국왕컵 준결승 1차전에서 AT마드리드 선수들이 후반 추가시간 터진 동점골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몰아친 경기였다. AT 마드리드는 전반 1분 만에 훌리안 알바레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먼저 골 맛을 봤고, 5분 뒤 역습 상황에서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추가골

이 이어지며 기선을 제압했다. 바르셀로나도 곧바로 응수했다. 전반 1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윌 쿨데가 내준 킥볼을 페드리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 맛을

보며 추격에 나섰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21분 하피나의 오른쪽 코너킥을 파우 쿠바르시가 헤더로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전반 41분 포다시 하피나의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헤더 역전골이 터지며 3-2로 승부를 뒤집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2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찰러준 라민 야말의 크로스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골대 정면에서 왼발로 방향을 바꿔 스코어를 4-2로 벌렸다.

하지만 AT 마드리드의 뒷심은 강했다.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39분 마르코스 요렌테가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쇄도하며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막판 추격의 불을 지피더니 후반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알렉산데르 쇠를로트의 '극장 동점골'이 터지며 기어코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김혜성, 시범경기 부진 타율 0.111·실책 2개 메이저리그 불투명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인 김혜성(26·사진)이 시범경기 부진으로 인해 개막 로스터 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혜성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케멀백엔지에서 열린 2025 MLB 시범 경기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 삼진 2개를 기록했다.

2025시즌을 앞두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김혜성은 시범 경기에서 11타석 9타수 1안타, 볼넷 2개, 타율 0.111을 기록 중이다.

이날 시애틀 첫 번째 타석처럼 장타를 날리기도 담담 앞에서 잡힌 것도 있지만 유일한 안타 하나는 빗맞은 내야 안타로 아직 타격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비도 문제다. KBO리그 카움 히어로즈에서 주로 맡았던 2루수는 물론 유격수와 중견수까지 소화하는 김혜성은 이번 시범 경기에서 벌써 실책 2개를 기록했다.

23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첫 실책을 했고 이날 시애틀전에서도 빗맞은 타구를 포구하지 못했다. 두 번 다 유격수 자리에서 나온 실책이다.

시범 경기 초반 부진한 모습에 현지에서는 벌써 김혜성의 '마이너행' 전망이 나온다. 현지 매체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아무래도 방망이에 의문점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 무대가 다른 만큼 김혜성은 스윙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전했다.

Inhancer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 운동성 향상
- 관절통증 및 관절염 예방에 도움
- 관절액과 글라이칸의 합성에 도움

인-한서로 관절문제에서 해방!

수입원 : 마야무역 www.mayaco.co.kr